

The Gospel of Mark

Sermon 13

Title: "A divided house and the unpardonable sin"

Scripture: Mark 3:20-33

Date preached: November 20th 2022

Scripture: Mark 3:20-33**20 Then the multitude came together again, so that they could not so much as eat bread.****21 But when His own people heard *about this*, they went out to lay hold of Him, for they said, "He is out of His mind."****22 And the scribes who came down from Jerusalem said, "He has Beelzebub," and, "By the ruler of the demons He casts out demons."****23 So He called them to *Himself* and said to them in parables: "How can Satan cast out Satan? 24 If a kingdom is divided against itself, that kingdom cannot stand. 25 And if a house is divided against itself, that house cannot stand. 26 And if Satan has risen up against himself, and is divided, he cannot stand, but has an end. 27 No one can enter a strong man's house and plunder his goods, unless he first binds the strong man. And then he will plunder his house. 28 "Assuredly, I say to you, all sins will be forgiven the sons of men, and whatever blasphemies they may utter; 29 but he who blasphemes against the Holy Spirit never has forgiveness, but is subject to eternal condemnation"— 30 because they said, "He has an unclean spirit." 31 Then His brothers and His mother came, and standing outside they sent to Him, calling Him. 32 And a multitude was sitting around Him; and they said to Him, "Look, Your mother and Your brothers are outside seeking You."****33 But He answered them, saying, "Who is My mother, or My brothers?" 34 And He looked around in a circle at those who sat about Him, and said, "Here are My mother and My brothers! 35 For whoever does the will of God is My brother and My sister and mother."**

20 예수님이 어느 집에 들어가시자 다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예수님 일행은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 21 한편 예수님의 가족은 그분이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붙잡으러 찾아 나섰었다. 22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들은 "그에게 사탄이 붙었다" 하며 또 "그가 귀신 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였다. 23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가까이 불러 놓고 비유를 들어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낼 수 있겠느냐? 24 한 나라가 서로 싸워 갈라지면 망하고. 25 한 집안도 서로 싸워 갈라지면 망한다. 26 그래서 사탄의 나라도 서로 싸워 갈라지면 오래 가지 못하고 망하는 법이다. 27 강한 사람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털어가려고 하면 먼저 그 사람을 잡아 묶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그 집을 털 수가 없다. 28 내가 분명히 말해 둔다. 사람에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용서받을 수 있으나.

29 성령님을 모독하는 자는 절대로 용서받지 못하고 그 죄는 영원히 남는다." 30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사람들이 "그에게 더러운 귀신이 붙었다" 하고 말했기 때문이다. 31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 와서 사람을 시켜 예수님을 부르자. 32 둘러앉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선생님, 어머니와 형제분들이 밖에서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33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내 어머니와 형제가 누구냐?" 하시고

Review

Before we look in some detail at today's passage let's spend a few minutes reviewing what we examined last time. We spoke about two events in the life and ministry of our Lord and saviour Jesus Christ. Both events took place in the region of Galilee. The first along the shores of the sea of

Galilee and the second up in the nearby mountains.

As we have seen over the past few weeks Jesus began to encounter increased hostility from the Jewish religious leaders. They were not happy with what He taught the people and the implications it had regarding their positions of authority and power. Like all people in positions of authority their greatest concern was how to hold onto that power. If people rejected the man made rituals and traditions of the Pharisees in order to follow Jesus then their influence would diminish greatly. They were also concerned that Jesus might lead a movement that would force the Roman authorities to come along and crush it. In order to destroy Jesus and put an end to His ministry the Pharisees had joined forces with the Herodians.

This increased animosity towards the Lord Jesus had forced Him out from the towns and cities. This was not because Jesus feared these people or what they could do to Him. Jesus remember was following a divine schedule, things would only take place as and when God had determined. We should not forget that Jesus primary mission to earth was to impart the good news. In the short time He had there was much work to be done. Therefore time spent arguing with the hard hearted and unrepentant Jewish religious leaders was effectively wasted time.

We pick up the story with Jesus at some point along the shore of Galilee. News of His amazing healing abilities had spread widely throughout that whole region. Today we are very accustomed to news spreading rapidly. The internet and social media means that within minutes important news can travel across the globe. In Jesus day news travelled by word of mouth. But still in a matter of weeks or months people across the region had heard about Jesus and were seeking Him out. They were in some cases travelling long distances. It's around 80km from Sidon to Capernaum which in those days was a considerable journey. The planes, trains and buses of Palestine were full of people travelling to northern Galilee. When they arrived they flocked to Jesus in the hope and expectations of being healed. It was sufficient it seems simply to touch the Lord Jesus or His clothing in order to be healed.

As we can imagine the desire to crowd around Jesus meant there was considerable danger of crushing or trampling. Therefore Jesus told His disciples to have a boat handy. If the crush got to be too much He could retire to the boat to preach. The Lord Jesus healed those who were sick as well as casting out the unclean spirits who were possessing people.

We then moved to the account of Jesus selecting His 12 disciples. If you've ever had the duty of selecting people for a job or task you know how important it is to choose the right people. One wrong choice can often disrupt or destabilise the whole group. It was then, a very important time in the life and ministry of our Lord. In order make His choice He asked a large group to follow Him into the mountains. It is from this large group that He selected twelve special men who would become His closest companions. We refer to them as the disciples and later as the apostles. They would be trained and prepared to carry on the work of spreading the gospel after Jesus had departed. The list of disciples appears on four different occasions in the New Testament. In each list we see slight variations in the naming or ordering of the disciples. However in each of the four lists we see a breakdown of the disciples into three main groups. In the first group we see the most prominent or well known disciples; Simon Peter, James, John and Andrew. In the second grouping we get Philip, Bartholomew, Matthew (Levi) and Thomas. In the final division we have James the *son* of Alphaeus, Thaddaeus, Simon the Cananite and Judas Iscariot. This is where we finished up last time.

오늘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을 몇 분 동안 살펴보겠습니다.

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성역에서 일어난 두 가지 사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두 사건 모두 갈릴리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는 갈릴리 바다 기슭을 따라, 두 번째는 인근 산들에 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우리가 보았듯이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증가된 적대감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분이 백성에게 가르치신 것과 그것이 그들의 권위와 권력의 위치에 미치는 영향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권위 있는 위치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그 권력을 유지하는 방법이었습니 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바리새인들의 의식과 전통을 만든 사람을 거부한다면 그들의 영향력은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예수께서 로마 당국이 나서서 그것을 분쇄하도록 강요할 운동을 이끌지 않을까 염려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멸하고 그의 사역을 끝내기 위해 헤롯당과 손을 잡았습니다. 주 예수에 대한 이 증가된 적대심으로 인해 그분은 마을과 도시에서 쫓겨났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두려워하거나 그들이 그분에게 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이 결정하신 대로만 일어날 것임을 기억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지상에 주신 주된 사명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에게 주어진 짧은 시간에 해야 할 일이 많았다. 그러므로 마음이 완고하고 회개하지 않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하는 데 보낸 시간은 사실상 시간 낭비였습니다. 우리는 갈릴리 해안을 따라 어느 시점에서 예수님과 이야기할 선택합니다. 그의 놀라운 치유 능력에 대한 소식은 그 지역 전체에 널리 퍼졌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빠르게 퍼지는 뉴스에 매우 익숙합니다.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를 통해 몇 분 안에 중요한 뉴스가 전 세계로 퍼질 수 있습니다. 예수 시대에 소식은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몇 주 또는 몇 달 만에 지역 전역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듣고 그분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경우에는 장거리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돈에서 가버나움까지는 약 80km, 그 당시에는 상당한 여정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비행기, 기차, 버스는 북부 갈릴리로 여행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그들은 치유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주 예수님이나 그분의 옷을 만지기만 하면 병이 낫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듯이, 예수님 주위에 무리를 짓고자 하는 열망은 짓밟거나 짓밟힐 상당한 위험이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배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짝사랑이 너무 심하면 그는 배에서 설교하기 위해 은퇴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는 병든 자들을 고치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들린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예수님이 12 제자를 선택하신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직업이나 작업을 위해 사람을 선택해야 하는 의무를 해본 적이 있다면 적합한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것입니다. 하나의 잘못된 선택은 종종 전체 그룹을 방해하거나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 주님의 생애와 사역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그분은 선택을 하시기 위해 많은 무리에게 그분을 따라 산으로 가도록 요청하셨습니다. 이 큰 그룹에서 그분은 가장 가까운 동반자가 될 12 명의 특별한 사람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제자라고 부르고 나중에는 사도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떠나신 후에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훈련되고 준비되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의 목록은 신약성경에서 네 가지 다른 경우에 나타납니다. 각 목록에서 우리는 제자들의 이름이나 순서에 약간의 변화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네 개의 목록 각각에서 우리는 제자들을 세 개의 주요 그룹으로 분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에서 우리는 가장 저명하거나 잘 알려진 제자들을 봅니다. 시몬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두 번째 그룹에는 빌립, 바돌로매, 마태(레위), 도마가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는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 다대오, 가나안 사람 시몬, 가롯 유다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친 곳입니다.

20 Then the multitude came together again, so that they could not so much as eat bread.

In this verse Mark gives us a sense of the intense pressure the people were putting on the Lord Jesus. I have often heard Hollywood movie stars, or top sports players talk about the intense scrutiny they live under. Wherever they go they are mobbed by people. Literally at every turn they are confronted by someone wanting to speak to them, get them to sign something or pose for a picture. It must be a very demanding and stressful life. Young people often say they want to be famous, but I'm not sure they really appreciate what its like. This was the kind of life that the Lord Jesus was living at this time. It wasn't a life that He had encouraged or cultivated but one that had spontaneously built up around Him. Had we been alive at that time I'm sure we too would have sought out this amazing man to see Him for ourselves. The crowds were so great, and the demands they placed upon Him were such that He didn't even have time to eat or get some rest. Let's read on.

이 구절에서 마가는 사람들이 주 예수께 가한 강렬한 압력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나는 종종 헐리우드 영화 배우나 최고의 스포츠 선수들이 그들이 살고 있는 엄격한 조사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말 그대로 그들은 그들에게 말을 걸거나, 서명을 하거나 사진을 찍기 위해 포즈를 취하게 하려는 누군가와 마주치게 됩니다. 그것은 매우 힘들고 스트레스가 많은 삶이어야 합니다. 젊은이들은 흔히 유명해지고 싶다고 말하지만, 그게 어떤 것인지 진정으로 고맙게 여기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시대에 주 예수님께서 사셨던 삶이 바로 이런 삶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격려하거나 계발하신 삶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분을 중심으로 세워진 삶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살아 있었다면 우리도 이 놀라운 사람을 찾아 그분을 직접 보았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군중은 너무나 많았고 그들이 그에게 요구한 것은 그분이 식사를 하거나 휴식을 취할 시간조차 없을 정도였습니다. 계속 읽어봅시다.

21 But when His own people heard *about this*, they went out to lay hold of Him, for they said, "He is out of His mind."

Back in the first sermon of this series I spoke about Mark's original audience. Mark was writing primarily to Gentile Christians living in Rome. To be a follower of Jesus in ancient Rome required great courage. Christians, you see had to cut themselves off from normal Roman life. Their conscience would not allow them to offer a sacrifice to one of the many Roman gods or worship the emperor. This meant that the pagan Roman world looked on them as strange, weird or even potentially dangerous. To give up "normal" Roman life and become a Christian was considered to be a crazy thing to do. So when the Mark's original readers read this verse they would readily have identified with how Jesus was treated.

News it seems had reached Jesus family about the kind of life He was living. They have travelled the 30 miles from Nazareth to Capernaum to sort this situation out. No doubt they were deeply concerned when they find out that He is surrounded by such large numbers of people. As working people from a small town it must have seemed like a very strange way of life.

They determine therefore to go and "lay hold," literally seize or restrain Him to make Him see sense, or to take Him back to Nazareth. The reason for this course of action is because when they look at the life He is living and the extreme business it entails they determine He must be "out of His mind." Or to express it in modern terms, "He's crazy!" Clearly they are wrong, but from our perspective well intentioned. They were concerned about someone they loved and cared about. Its worth us considering why it was they might have thought Jesus had lost His mind. Perhaps they thought he was crazy for the following things.

1 He left a good business (being a carpenter) to become an itinerant preacher.

2 The fame and attention had gone to His head. He's living the life of a celebrity.

3 The religious leaders challenged and threatened Him but He did not back down.

4 He picked such an unlikely bunch of men to be His disciples.

5 He's so busy doing things He's neglecting to care for His daily needs.

Jesus of course was not out of His mind. But He was radical and different to anyone who had ever come before. So Jesus family thought He was mad what did the scribes think? Let's find out.

이 시리즈의 첫 번째 설교로 돌아가서 저는 Mark 의 원래 청중에 대해 말했습니다. 마가는 주로 로마에 사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고대 로마에서 예수를 따르려면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정상적인 로마 생활에서 스스로를 단절해야 했습니다. 그들의 양심은 많은 로마 신들 중 한 신에게 희생을 바치거나 황제를 숭배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교도 로마 세계가 그들을 이상하고 이상하거나 잠재적으로 위험한 것으로 보았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정상적인" 로마 생활을 포기하고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미친 짓으로 여겨졌습니다. 따라서 마가의 원래 독자들이 이 구절을 읽었을 때 그들은 예수가 어떻게 대우받았는지 쉽게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에 대한 소식이 예수님의 가족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들은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나사렛에서 가버나움까지 30 마일을 여행했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그들은 그분이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깊은 걱정을 했을 것입니다. 작은 마을에서 일하는 사람들로써 그것은 매우 이상한 삶의 방식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가서 “붙잡아” 말 그대로 그분을 붙잡거나 제지하여 그분이 이해하도록 하거나 그분을 나사렛으로 다시 데려가기로 결정합니다. 이러한 행동을 취하는 이유는 그들이 그분이 살고 있는 삶과 그에 수반되는 극도의 사업을 볼 때 그분이 “제정신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또는 현대 용어로 표현하자면 “그는 미쳤어!” 분명히 그들은 틀렸지만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선의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사랑하고 아끼는 누군가에 대해 걱정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정신을 잃었다고 생각한 이유를 생각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그가 다음과 같은 일에 미쳤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1 그는 순회 설교자가 되기 위해 좋은 사업(목수)을 떠났다.

2 명성과 관심이 그의 머리에 쏟아졌습니다. 그는 연예인의 삶을 살고 있다.

3 종교 지도자들이 그분께 도전하고 위협했지만 그분은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4 그분은 그런 의외의 사람들을 당신의 제자로 택하셨습니다.

5 그는 일을 하느라 너무 바빠서 매일의 필요 사항을 돌보는 일을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제정신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는 이전에 왔던 그 누구와도 근본적이고 달랐습니다. 그래서 예수 가족은 그가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서기관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알아 보자.

22 And the scribes who came down from Jerusalem said, “He has Beelzebub,” and, “By the ruler of the demons He casts out demons.”

The scribes mentioned here appear to be an official delegation sent from Jerusalem to assess the Lord Jesus and evaluate His activities. Today we would say they were sent on a “fact finding mission.” In particular, they sought an explanation for how Jesus was able to cast out unclean spirits. After some deliberation they come to the very bizarre conclusion that the reason that Jesus was able to cast out demons was that He Himself was possessed by Satan. Or to put it another way that He was fighting on the same side as Satan. Let's see how the Lord Jesus responds.

여기에 언급된 서기관들은 주 예수를 평가하고 그의 활동을 평가하기 위해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공식 대표단으로 보인다. 오늘 우리는 그들이 "사실 조사 임무"로 파견되었다고 말할 것입니다. 특히 그들은 예수께서 어떻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실 수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구했습니다. 고민 끝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실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이 사탄에게 들렸기 때문이라는 아주 기이한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또는 사탄과 같은 편에 서서 싸우고 있었다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 예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봅시다.

23 So He called them to *Himself* and said to them in parables: “How can Satan cast out Satan? 24 If a kingdom is divided against itself, that kingdom cannot stand. 25 And if a house is divided against itself, that house cannot stand. 26 And if Satan has risen up against himself, and is divided, he cannot stand, but has an end.

Jesus calls the scribes over and challenges them with a series of logical parables. A parable is a story in which we place two things alongside one another in order to make a comparison. Jesus frequently used them to highlight heavenly truths. Let us look at the first of the parables He uses here.

It concerns their claim that Jesus and Satan are on the same side. The Lord's question is as follows, **How can Satan cast out Satan?** Let's think about this logically. When an army invades another country it is to their advantage to leave troops occupying that country. They cannot control things or make strategic moves if their forces are located in another place. So it is to Satans' advantage to have his demons possessing people. When Satan has control of human beings they can be used to further his evil plans. Therefore if Jesus were working for Satan, why would He be acting in a way that defeated Satan's plans. It would be as if the Russian soldiers who have invaded Ukraine began shelling their own positions. Any side that begins attacking itself in a war or battle will surely lose. Victory comes only through being united and focused on a single enemy. Any force that is fractured or divided is doomed to defeat.

Jesus was not working with or for Satan. He was opposed to him and was defeating him on every occasion. In reality Satan was losing not because he is fighting against himself but rather because he is fighting a much more powerful force. Let us read on.

예수님은 서기관들을 불러 일련의 논리적인 비유로 도전하십니다. 비유는 비교를 위해 두 가지를 나란히 놓는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늘의 진리를 강조하기 위해 그것들을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여기서 그분이 사용하신 첫 번째 비유를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예수와 사탄이 같은 편에 있다는 그들의 주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주님의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낼 수 있습니까? 이것을 논리적으로 생각해보자. 군대가 다른 나라를 침공할 때 그 나라를 점령하고 있는 군대를 남겨두는 것이 그들에게 유리합니다. 군대가 다른 곳에 있으면 통제하거나 전략적인 움직임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악귀들이 사람들을 사로잡게 하는 것이 사탄에게 유리합니다. 사탄이 인간을 통제할 때 인간은 그의 사악한 계획을 추진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사탄을 위해 일하고 계셨다면 왜 사탄의 계획을 무찌르는 방식으로 행동하셨습니까? 마치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군이 자신들의 위치를 포격하기 시작한 것과 같습니다. 전쟁이나 전투에서 스스로를 공격하기 시작하는 쪽은 반드시 패배할 것입니다. 승리는 단결하고 하나의 적에게 집중할 때만 옵니다. 분열되거나 분열된 모든 세력은 패배할 운명입니다. 예수님은 사탄과 함께 또는 사탄을 위해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그를 반대했고 모든 경우에 그를 이겼습니다. 사실 사탄이 지는 것은 자기 자신과 싸워서가 아니라 훨씬 더 강력한 세력과 싸우기 때문입니다. 계속 읽어봅시다.

27 No one can enter a strong man's house and plunder his goods, unless he first binds the strong man. And then he will plunder his house.

The second parable highlights how much stronger Jesus is than Satan. In this parable the strong man is Satan, the person entering the house is Jesus and the goods are those who are possessed or controlled by the evil one. We know that if we want to enter someone's house and take something that belongs to them they will resist us. If I enter another man's house and try to take his TV I will expect to have to fight him for it.

No one would just let a thief take their possessions without some kind of fight or resistance.

So Jesus is in effect saying that He has the power and authority to come and take back those possessed by Satan and set them free. If He were on Satan's team He certainly wouldn't be acting in this way. Satan may be a strong adversary, but he is no match for the Lord Jesus. In fact because Jesus is able to exorcise demons and free people from Satan it means He already has him bound. Let us continue.

두 번째 비유는 예수님이 사탄보다 얼마나 강한지를 강조합니다. 이 비유에서 강한 자는 사탄이고, 집에 들어가는 자는 예수님이며, 재물은 악한 자에게 사로잡혀 있거나 조종당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집에 들어가 그들의 소유물을 가져가려고 하면 그들이 우리를 저항할 것임을 압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TV를 훔치려고 하면 나는 그것을 위해 그와 싸워야 할 것으로 예상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어떤 종류의 싸움이 나 저항 없이 도둑이 자신의 소유물을 가져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사탄에게 들린 자들을 되찾아 자유케 하는 권세와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가 사탄의 팀에 있었다면 그는 확실히 이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탄은 강력한 대적이 될 수 있지만, 그는 주 예수님과 대적할 수 없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고 사탄에게서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을 결박하셨다는 뜻입니다. 계속하자.

28 “Assuredly, I say to you, all sins will be forgiven the sons of men, and whatever blasphemies they may utter; 29 but he who blasphemes against the Holy Spirit never has forgiveness, but is subject to eternal condemnation”— 30 because they said, “He has an unclean spirit.”

Jesus now backs up what He has just said with a solemn warning. The expression, “Assuredly, I say to you” occurs 13 times in Mark's gospel. On each occasion it is the Lord Jesus speaking. It is in effect Jesus saying to us, “listen up, I, God am speaking.” Therefore we should sit up and pay attention. Our saviour is about to impart an important truth. What Jesus says here has been the subject of much debate over the centuries. The debate centres around what exactly is the unpardonable, or unforgivable sin Jesus refers to here. It's important for obvious reasons. We don't want to commit a sin that results in us being unable to receive forgiveness. This is a worry, or concern that some Christians have. They are concerned that they many have inadvertently committed the unpardonable sin. I don't think this is the case as I will explain. Let's look carefully at what Jesus says.

The first thing to note is that Jesus begins by reassuring us that “**all**” the sins and blasphemies we commit will be forgiven us. Please note that Jesus is not teaching a form of universalism here. Universalism is the belief held by some that God will show mercy and eventually forgive all people. This is a position that is not supported by scripture. Rather what Jesus means is that all types and classes of sin can be forgiven if the person confesses and repents before God. Isn't that wonderful news. Each and every day we fall into sin with the way we act, speak and think. But God is merciful in forgiving our sins and restoring us to fellowship with Him when we confess.

Then we come to the “**but**,” the exception to this general rule. There is a sin that will not be forgiven. It is we are told the sin of blaspheming the Holy Spirit.

What exactly is meant here by the term blasphemy. Blasphemy refers to a sinful type of speech that is hostile, malicious, injurious, and derogatory of God. One of the ways blasphemy can be committed is by claiming that God's work is actually the work of someone or something else. This was the type of sin the scribes had committed. They were attributing the amazing work (healing and exorcisms) that the Lord Jesus Christ was doing to Satan and not to the Holy Spirit. The scribes and the Pharisees knew, or at least strongly suspected that Jesus was the Messiah sent by God to save Israel. The evidence of the signs and wonders was irrefutable. They were biblical scholars and knew that the Old Testament prophecies were being fulfilled. Yet they deliberately and directly chose to deny the truth and slander the Holy Spirit.

I am of the position that this unpardonable sin was specific to this particular time and place. The sin that Jesus highlights is that of attributing Jesus power to Satan. Since the Lord Jesus is not physically present today I do not think the unpardonable sin can be committed today.

However with that being said one can still be guilty of rejecting and rebelling against the clear truths presented by Jesus. People today can be guilty of denying who Jesus is and recognizing that the Holy Spirit empowered Jesus' mighty works. Sadly we see this commonly today.

Even some in the church want to deny or minimise the supernatural aspects of Jesus' ministry.

If you have ever worried about the unpardonable sin then let me give you some reassurance. The unpardonable sin is not an accidental, impulsive, or unguarded slip of the tongue. It is a deliberate denial over a long period of time of the truth about Jesus. God responds to such rebellion by hardening the rebel's heart and not giving that person a desire to repent and believe. The sin is unforgivable because God never enables that person to repent and believe. So this is a sin that only unbelievers can commit. If you are a believer, and even asking the question of whether you have committed the sin it probably means you haven't. The person who has committed it doesn't care because they wilfully and deliberately rejected God. The safest way to avoid committing the unpardonable sin is to believe the testimony that the Holy Spirit has given about Jesus in Scripture. That He is the Christ, the Messiah the one God sent to save us. Let us continue.

이제 예수께서는 엄숙한 경고로 방금 말씀하신 것을 뒷받침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라는 표현은 마가복음에 13 번 나옵니다. 매번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실상 예수께서 우리에게 “들어라, 나 하나님이 말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앉아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의 구주께서는 중요한 진리를 전하려고 하십니다. 예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은 수세기 동안 많은 논쟁의 주제였습니다. 논쟁은 예수님이 여기서 언급하신 용서받을 수 없는 죄, 또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정확히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분명한 이유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를 짓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은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걱정입니다.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부주의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범했다고 염려합니다. 내가 설명하는 것처럼 이것은 경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봅시다. 주목해야 할 첫 번째 사항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저지르는 “모든” 죄와 신성모독이 용서받을 것이라고 우리를 안심시키는 것으로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보편주의의 한 형태를 가르치고 있지 않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보편주의는 신이 자비를 베풀고 결국 모든 사람을 용서할 것이라는 일부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뒷받침하지 않는 입장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백하고 회개하면 모든 종류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멋진 소식이 아닙니까? 매일 우리는 행동하고 말하

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죄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고백할 때 그분과 교제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는 자비로우십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이 일반 규칙에 대한 예외인 "그러나"에 도달합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성모독이라는 용어가 정확히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성 모독은 적대적이고 악의적이며 해를 입히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죄 많은 유형의 말을 말합니다. 신성모독을 저지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하나님의 일이 실제로 누군가의 일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기관들이 지은 죄의 유형이었습니다.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놀라운 역사(고침과 귀신 쫓는 일)를 성령이 아니라 사탄에게 돌리고 있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거나 적어도 강하게 의심했습니다. 표적과 기사의 증거는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성경 학자였으며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고의적으로 직접적으로 진리를 부인하고 성령을 비방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나는 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이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 국한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죄는 예수님의 권세를 사탄에게 돌리는 죄입니다. 오늘 주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에 나는 오늘날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더라도 여전히 예수께서 제시하신 분명한 진리를 거부하고 거역하는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부인하고 성령이 예수님의 능한 일에 능력을 주셨음을 인정하는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슬프게도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흔히 봅니다. 심지어 교회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역의 초자연적인 측면을 부인하거나 최소화하기를 원합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에 대해 걱정한 적이 있다면 제가 위로를 드리겠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우발적이거나 충동적이거나 방심하지 않은 허의 실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랜 기간 동안 예수에 관한 진리를 의도적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역자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고 그 사람에게 회개하고 믿을 마음을 주지 않으심으로써 그러한 반역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 사람이 회개하고 믿도록 허용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죄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불신자만이 지을 수 있는 죄입니다. 당신이 신자이고 당신이 죄를 지었는지 묻는 것조차 그것은 아마도 당신이 죄를 짓지 않았음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것을 저지른 사람은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상관하지 않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짓지 않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성경에서 성령께서 예수님에 대해 주신 증거를 믿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계속하자.

31 Then His brothers and His mother came, and standing outside they sent to Him, calling Him. 32 And a multitude was sitting around Him; and they said to Him, "Look, Your mother and Your brothers are outside seeking You."

Mark now returns to tell us about Jesus family. They remember had come from Nazareth to "seize hold" of Him because He was out of His mind. They had been waiting outside of the house and calling for Him to come out. The large crowds that surrounded Jesus meant it was difficult for Jesus family to enter the house.

However on a deeper level I think Mark also uses this contrast of being "inside" and "outside" to make a spiritual point. Those "inside" with Jesus were all open to what He had to teach. He revealed to those inside things that he kept from those who were outside. His family were on the outside therefore they were not privy to the secret things of the kingdom. Nobody on the "inside" was saying Jesus was crazy.

So Jesus family were clearly expecting Him to come out and speak to them. They wanted to reason with Him in private. Their hope was that they could either get Him to stop what He was doing, or accompany them back to Nazareth.

At some point those inside the house alert Jesus to the fact that His family is outside. Let us see how Jesus responds.

마가는 이제 예수 가족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돌아옵니다. 그들은 그분이 제정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분을 “붙잡기 위해” 나사렛에서 왔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들은 집 밖에서 그분이 나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큰 무리는 예수님 가족이 집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더 깊은 수준에서 Mark는 영적인 요점을 만들기 위해 "내부"와 "외부"의 대조를 사용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내부” 사람들은 모두 그분이 가르쳐야 하는 것에 열려 있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외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숨기셨던 것들을 내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그의 가족은 외부에 있었기 때문에 왕국의 은밀한 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내부”의 누구도 예수님이 미쳤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은 예수님이 나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것을 분명히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개인적으로 그분과 논쟁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의 희망은 그분이 하시던 일을 멈추게 하거나 나사렛으로 돌아가도록 동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집 안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족이 밖에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 경고합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봅시다.

33 But He answered them, saying, “Who is My mother, or My brothers?” 34 And He looked around in a circle at those who sat about Him, and said, “Here are My mother and My brothers! 35 For whoever does the will of God is My brother and My sister and mother.”

What do you make of Jesus response?

Some might say that He appeared to be at best dismissive or at worst rude. His family cared about His well being and had travelled some distance to try and help Him. Their motives were good even if they were actually wrong in their assessment of Jesus. So should Jesus have at least gone out to speak to them or even accompanied them back to Nazareth? Perhaps you think He should. But think for a moment about what kind of message that would have sent. It could have been used by the Pharisees against Him.

What might they have said? Look, He agrees with the assessment of His family. Clearly there is something wrong with this man, don't take Him too seriously. Therefore Jesus responds to this situation in a very different way, He uses it as an opportunity to teach a spiritual lesson.

In Korea the bond of the family is very strong. A great deal of importance is placed on respecting elders and treating family members well.

This was also true for those living in ancient Israel. In Jewish society the family was of prime importance.

To suggest that strangers or people that we hardly know were as important as our biological parents or siblings would have been quite shocking to Jesus hearers. But remember Jesus here is making a spiritual point.

Those that are called by God and who live to serve and do His will are now members of a new kind of family. It is an eternal family and the only condition of membership is that God has called you, and that you now live to do Gods will.

It's also worth remembering that Jesus' half brothers were not supportive of Him during His period

of ministry. As a result Jesus felt much closer to those who had given up their families and occupations to come and follow Him.

I am eternally grateful that I was born into a Christian family. You may have not been so fortunate. Perhaps you are the only believer in your family. Maybe there are members of your family who make comments about your faith, or who try to dissuade you from coming to church or being a Christian. Perhaps you are encouraged to engage in practices or traditions that as a Christian you find offensive. This is certainly true in Korea where families still practice pagan rites ceremonies on special occasions. It may be very difficult to have to deal with these kinds of issues. None of us want to hurt or offend people we love. However Jesus reminds us that He is to come first. We must never allow anyone else to influence us away from the will of God.

This is not intended to mean that our earthly families are not important or special. We are not to read these verses and take them as an excuse for abandoning or neglecting our families. Doing this would not be pleasing or honoring to God. He expects us to love, care and provide for those we are related to. But what we are to take from this is that our relationship to with our heavenly Father and our new spiritual family is to take priority over our earthly family.

예수님의 반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분이 가장 잘 무시하거나 최악의 경우 무례한 것처럼 보였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의 가족은 그분의 안녕을 염려했고 그분을 도우려고 어느 정도 먼 거리를 여행했습니다. 그들의 동기는 비록 그들이 실제로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틀렸을지라도 선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적어도 그들에게 말씀하러 나가셨거나 심지어 나사렛으로 돌아가기까지 동행하셨어야 했을까요? 아마도 당신은 그가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종류의 메시지를 보냈을지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바리새인들이 그분을 대적하는 데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무슨 말을 했을까요? 보십시오, 그분은 자신의 가족에 대한 평가에 동의하십니다. 이 사람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를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매우 다른 방식으로 이 상황에 응답하십니다. 그는 그것을 영적인 교훈을 가르치는 기회로 사용하십니다. 한국에서는 가족의 유대가 매우 강합니다. 장로를 공경하고 가족을 잘 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고대 이스라엘에 살았던 사람들에게도 해당되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가족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낯선 사람이나 우리가 거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친부모나 형제자매만큼 중요하다고 제안하는 것은 예수님의 청중들에게 매우 충격적인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이 영적인 요점을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섬기고 행하는 사람들은 이제 새로운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가족이며 회원의 유일한 조건은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고, 당신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사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복형제들이 그분의 사역 기간 동안 그분을 지지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가족과 직업을 버리고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을 훨씬 더 가까이 느끼셨습니다. 나는 내가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 것에 대해 영원히 감사합니다. 당신은 그렇게 운이 좋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가족 중 유일한 신자일 것입니다. 아마도 가족 중에 당신의 신앙에 대해 논평을 하거나 당신이 교회에 나오거나 기독교인이 되는 것을 억누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당신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불쾌감을 느끼는 관습이나 전통에 참여하도록 권장될 것입니다. 이것은 여전히 가족들이 특별한 경우에 이교 의식을 행하는 한국에서 사실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문제를 처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사랑하는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먼저 오실 것임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어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게 해서는 절

대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지상 가족이 중요하지 않거나 특별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읽고 가족을 버리거나 방치하는 핑계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영화롭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관련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돌보고 부양해주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새로운 영적 가족과의 관계가 지상 가족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Things to think about

I have two comments to make on today's passage.

1 Jesus is our liberator

In our passage today we read about how Jesus was easily able to overpower Satan. Satan is a strong and powerful adversary, but he is nothing compared to God. There are generally two mistakes people make about Satan. The first is to assume that he doesn't exist at all. The second is to ascribe to him too much power and authority. Satan is happy with people believing either of these views. The truth is that on the cross the power and authority of Satan was once and for all time defeated. The Lord Jesus has set us free. He has liberated us. This means that we are no longer bound to a miserable life of sin. However at times we may be tempted to once again allow ourselves to be burdened or slaves to sin. Sometimes Christians find themselves in bondage to things they know are neither good for them nor pleasing to God, but they can't seem to stop. Whether the bondage is to gossiping, addictive behaviours, or ungodly relationships, each person shares the same struggle to be free. When we feel stuck or bound by sinful practices or habits we are to remember that Jesus is our liberator. He has set us free. We can turn to Him and ask for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to once and for all break the chains that bind us to sin.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사탄을 쉽게 이길 수 있었던 방법에 대해 읽습니다. 사탄은 강하고 강력한 대적이지만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사탄에 대해 저지르는 두 가지 실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너무 많은 권력과 권위를 그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러한 견해 중 하나를 믿는 사람들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진실은 십자가에서 사탄의 권세와 권세가 단번에 영원히 패배했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는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더 이상 비참한 죄의 삶에 매여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다시 한 번 우리 자신을 죄의 짐이나 종이 되게 하려는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때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에게 좋지 않고 하나님도 기쁘시게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멈출 수 없는 것들에 속박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속박이 험담이든, 중독성 있는 행동이든, 불경건한 관계이든, 각자는 자유를 얻기 위해 같은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악된 습관이나 습관에 갇히거나 속박되어 있다고 느낄 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해방자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께 향하여 우리를 죄에 묶고 있는 사슬을 단번에 끊을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간구할 수 있습니다.

2 A part of God's family

I hope that you were born and grew up in a loving home.

More importantly, I hope that you were raised by good God-fearing parents. I know however that this is not the case for all. You may have been neglected or abused as a child. You may have grown up without knowing real love or affection. Many children grow up with one of their parents being absent. Either physically or emotionally. That I am afraid to say is the reality for many children in

our fallen world today.

So when Jesus says that through Him we have a place in a real and loving family that is wonderful news. It is a cause for great joy and celebration. Perhaps as you hear my words you feel lonely or unloved. If you do take heart. To those God has called we are welcomed into His eternal heavenly family. Never again do we need to feel lonely or neglected. Never again do we need to feel that we are not loved or cared for. We are a part of God's loving and eternal family. Think on that and be joyful.

사랑하는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좋은 부모 밑에서 자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무시당하거나 학대를 받았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진정한 사랑이나 애정을 모른 채 자랐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부모 중 한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성장합니다. 육체적으로든 감정적으로든. 제가 말하기가 두려운 것은 오늘날 타락한 세상의 많은 어린이들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당신을 통해 우리가 참되고 사랑스러운 가족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놀라운 소식입니다. 그것은 큰 기쁨과 축하의 원인입니다. 아마도 당신은 내 말을 들으면서 외롭거나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낄 것입니다. 마음을 먹는다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분의 영원한 하늘 가족으로 환영받습니다. 다시는 외롭거나 무시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는 우리가 사랑받지 않거나 보살핌을 받지 못한다고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스럽고 영원한 가족의 일부입니다. 그것을 생각하고 기뻐하십시오.

